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1. 미국 3PL 시장, 예년 수준의 성장세 유지



물류정책·산업동향

1. 지난해 미국 Top 20 항만, 수입 '컨' 물동량 2천만 TEU 처리
2. 남아공 컨테이너 해운시장 성장, 소비 지출과 광산물 수출이 이끌어
3. Betuwe Route 철도노선, 로테르담항의 지속가능 성장동력
4. iContainers, 화물운송상태 자동알림 시스템 출시
5. 무료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BoxTech" 사용자 급증

명사 스피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꿈을 가지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해양강국'을 꿈꾸고자 합니다. 해운산업을 재건하여 5대양 6대주에 가장 경쟁력 있는 우리의 선단이 가닿지 않는 곳이 없는 세계물류중심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2017. 6. 19. / 해양수산부장관 취임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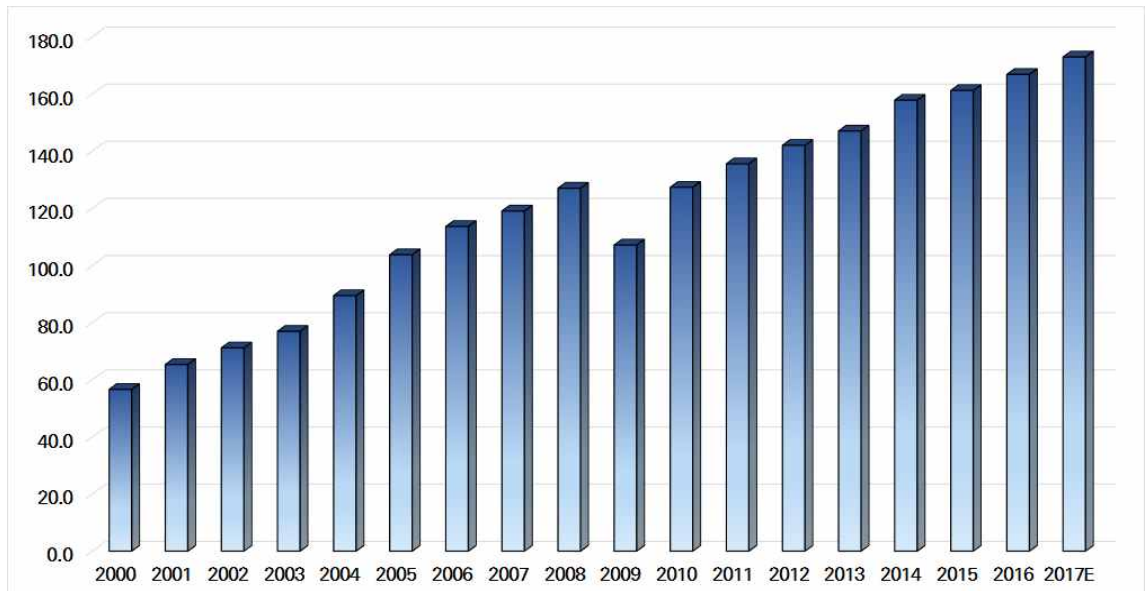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미국 3PL 시장, 예년 수준의 성장세 유지

2000-2017년도 미국 3PL 시장 규모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www.logisticsmgmt.com

- 최근 발표된 Armstrong의 “3PL 시장 성과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3PL 시장 성과 및 전망과 관련해 특별히 대단한 것은 없다고 밝힘
- 2016년도 미국의 3PL 시장은 ‘평범한 한 해’로 평가됨
 - 2010년 이후 소폭의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의 시장 규모는 1,66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에는 1,729억 달러의 규모로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중반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진 대규모 M&A가 3PL을 변화시켰으며, 이런 M&A 추세는 2016년부터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작년 2분기에 이루어진 페덱스의 TNT 인수가 가장 큰 M&A로 꼽힘
- 2016년 글로벌 3PL 시장 규모는 8,020억 달러로, 2020년에는 9,62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www.logisticsmgmt.com, 2017.6.19.

물류정책 · 사업동향

지난해 미국 Top 20 항만, 수입 '컨' 물동량 2천만 TEU 처리

- 항만기술 전문 매체인 Port Technology와 Descartes Datamyn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미국 Top 20 항만의 수입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은 2,000만 TEU를 넘은 것으로 조사됨
 - 2015년 1,970만 TEU에 비해 1.97% 증가했으며, LA항과 노퍽항, 잭슨빌항이 각각 9.3%, 10.0%, 11.7%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미국 Top 20 항만 수입물동량 및 수입금액

순위	항명	수입물동량(TEU)			수입금액(백만 USD)		
		2016	2015	증감률	2016	2015	증감률
1	LOS ANGELES, CA	4,519,661	4,135,746	9.30%	240,853	238,855	0.84%
2	LONG BEACH, CA	3,159,963	3,541,284	-2.60%	55,571	59,142	-6.04%
3	NEW YORK/NEW JERSEY, NJ	3,202,832	3,243,562	-1.30%	156,707	168,507	-7.00%
4	SAVANNAH, GA	1,663,366	1,624,215	2.40%	59,264	61,698	-3.95%
5	NORFOLK, VA	1,155,718	1,050,775	10.00%	44,171	43,226	2.19%
6	TACOMA, WA	950,332	872,340	8.90%	43,774	42,160	3.83%
7	CHARLESTON, SC	881,143	836,040	5.40%	46,050	49,279	-6.55%
8	HOUSTON, TX	879,046	840,444	4.60%	49,763	59,754	-16.72%
9	OAKLAND, CA	858,786	823,922	4.20%	30,219	27,734	8.96%
10	SEATTLE, WA	484,710	485,784	-0.20%	15,200	15,510	-2.00%
11	MIAMI, FL	429,701	419,981	2.30%	14,452	14,970	-3.46%
12	BALTIMORE, MD	418,827	387,366	8.10%	35,920	35,803	0.33%
13	PORT EVERGLADES, FL	341,322	324,878	5.10%	10,436	11,976	-12.86%
14	PHILADELPHIA, PA	262,713	240,841	9.10%	17,664	18,791	-6.00%
15	JACKSONVILLE, FL	204,753	183,360	11.70%	17,368	15,862	9.49%
16	WILMINGTON, DE	182,494	173,380	5.30%	6,917	5,662	22.17%
17	SAN JUAN, PR	157,379	155,194	1.40%	5,418	5,964	-9.16%
18	BOSTON, MA	119,609	115,740	3.30%	7,665	8,817	-13.07%
19	NEW ORLEANS, LA	110,819	116,865	-5.20%	56,416	57,057	-1.12%
20	WILMINGTON, NC	102,408	125,033	-18.10%	4,286	5,156	-16.87%
Total		20,085,582	19,696,750	1.97%	918,114	945,923	-2.94%

자료 : Descartes Datamyne, U.S. Port Report 2016: The Top 20 U.S. Ocean Ports by Import Volume, 2017

- 2016년 파나마운하의 확장은 미국 동부 항만의 물동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미국 동부의 잭슨빌항, 노퍽항, 필라델피아항, 볼티모어항, 찰스턴항 등의 물동량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노퍽항의 경우 10% 이상의 물동량 증가를 보여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항만을 통한 수입은 금액기준으로 2015년 945,923백만 USD에서 2016년 918,114백만 USD로 2.94% 감소함



-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미국의 수입물동량 위축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세계 경제의 회복, 항운노조와의 마찰 해소 등의 호재로 인해 미국 항만산업은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미국, 중국 등의 경제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미국 항만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LA항의 경우 자동화 터미널인 TraPac 건설에 따른 항운노조와의 마찰이 해소됨으로써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됨

■ 참고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7.6.8.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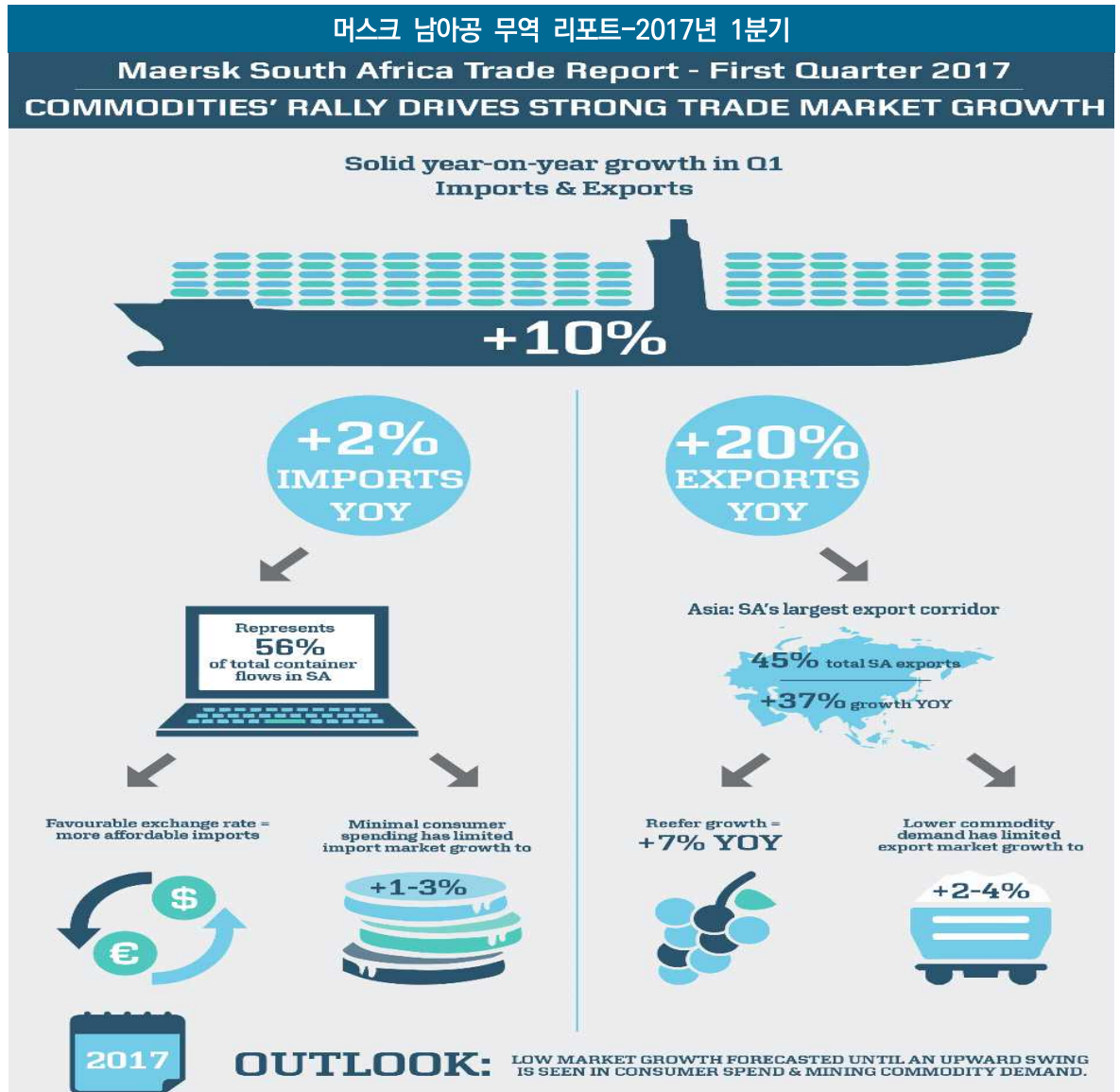


남아공 컨테이너 해운시장 성장, 소비 지출과 광산물 수출이 이끌어

-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은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2017년부터 여러부문에서 격변이 있었음. 그러나 컨테이너 해운 부문은 1분기 수출입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1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머스크라인의 남아공 지사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성장은 대부분 광물 수출 증가에 따른 것임
 - 또한 광업 및 광물 자원 부문 경기가 2016년 침체된 이후 상품가격이 2017년 4월까지 두드러지게 회복되면서 남아프리카 컨테이너 수출이 전년대비 20% 증가함
 - 남아프리카 지역 광산물에 대한 아시아의 수요 증가로 2017년 1분기 對아시아¹⁾ 수출은 전년대비 37% 증가함
 - 남아공의 주요 광산물인 크롬 및 망간은 가전제품에서 도로 및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전세계 소비자 수요와 인프라 건설에 많이 소비됨
 - 특히 중국이 추진중인 실크로드 계획이 남아공의 광산품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으며 벌크화물의 컨테이너화 추세도 컨테이너 화물을 증가시키고 있음
- 광산물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변동성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들어 크롬 수요는 크게 감소한 반면 망간 수요는 증가함
 - 머스크라인은 상품 수요는 일반적으로 단기 변동사이클을 따르는데 최근 낮아진 수요로 인해 상품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남은기간 동안은 2-4% 정도의 시장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 2017년 1분기 냉장화물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7% 증가함
 - 이는 남아공산 포도에 대한 유럽의 견조한 수요가 반영됐기 때문임
 - 또한 남아프리카 냉장컨테이너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감귤작물은 5-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남아공 수입 컨테이너 화물은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함
 - 이는 상당히 높은 성장을 기록했던 2013년에 비해 약간 못미치는 수준으로 2016년 수입이 5%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보임
 - 그러나 1분기 수입 증가는 예상보다 높았으며 이는 유리한 환율과 연관되어 있음. 즉 환율 수준이 수입이 보다 유리해 기업들이 재고를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었음
- 머스크라인은 장기간에 걸친 성장만이 소비자의 신뢰와 구매에 대한 지속적인 반등을 의미하는데 소비자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5% 성장이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하고 있음
 - 오히려 올해 남은 기간동안 1-3%의 컨테이너 수입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 머스크라인은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지난 몇 년간 남아공 컨테이너 시장의 변동성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너무 낙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언급함

1) 아시아는 남아공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지역임

- 전년대비 10%라는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7년 1분기 시장규모는 2013년 시장규모보다 5% 정도 높았음
-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간 연평균 1% 밖에 성장하지 못한 것을 의미함. 따라서 중국의 광산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세계 각 지역별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올해 남은 기간동안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 : Maersk, Hellenicshippingnews.

참고자료 : hellenicshippingnews.com, 2017.6.14.

박성화 전문연구원

051-797-4614, shpark83@kmi.re.kr



Betuwe Route 철도노선, 로테르담항의 지속가능 성장동력

- 2007년 6월 18일 개통한 Betuwe Route 철도 노선은 로테르담항의 화물 운송의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최근 수 년 동안 Betuwe Route는 로테르담항의 물동량 성장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국가 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함에 따라, 로테르담 항만당국은 철송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네덜란드에서 철도로 운송되는 주요화물은 컨테이너, 철광석, 석탄, 화학제품 등이며, Betuwe Route는 상대적으로 혼잡하고 복잡한 네덜란드 철도망에서의 운송 효율성을 향상시킴
- 로테르담 항만청의 최고운영책임자인 Ronald Paul씨는 화물 운송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 항만은 배후지역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며, Betuwe Route는 항만의 지속적인 발전과 화물 운송 수단의 전환도 가능하게 하므로 항만당국 입장에서 매우 적절한 투자였다고 언급함
 - Betuwe Route는 교통 혼잡과 기존 철도 노선 인근 거주자의 불편함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송 및 여객 운송의 철도 네트워크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등 네덜란드 전체가 Betuwe Route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언급함
 -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화물운송 전용 철도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이며, 특히 Betuwe Route는 위험물 운송 시 도시와 기존 철도망을 우회할 수 있어 매우 안전한 대안으로 활용 가능함
- 매년 약 5만 대의 열차가 항만구역에서 Betuwe Route 출발지인 Havenspoorlijn을 이용하며, A-15 고속도로와의 연계로 2만 대 이상의 열차가 통과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로테르담항 컨테이너 화물의 10.4%가 철도로 운송되었으며 해상으로 35%, 나머지는 도로를 통해 운송되었음
 - 2014년 로테르담-독일 축선의 모든 철도 교통량의 82%가 Betuwe Route를 경유하여 인도되었으나, 2015~2016년에 독일의 철도 노선 작업으로 우회함에 따라 57%로 감소함
- 로테르담항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철도를 통해 배후지역으로 운송되므로 향후 성장을 위해 현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함
 - Ronald Paul씨는 철도를 이용한 화물과 여객 운송의 비중을 균형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철도 운송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ProRail과 네덜란드 환경부의 조치가 중요하다고 언급함
 - 네덜란드에서는 고가인 유럽의 철도안전 시스템(ERMTS)을 사용하고, 운전자의 2개 국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운영비가 높은 반면 독일에서 사용료를 50% 인하하기 위한 제안이 검토 중에 있어 국가 간 동일한 수준에서의 운영 여건 조성이 필요함
 - 또한 최근 Emmerich와 Oberhausen 사이에 세 번째 노선의 개발이 시작되었음에도 경로에 대한 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Betuwe Route가 독일에서의 운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매우 중요함





자료 : www.nrc.nl

참고자료 : www.portofrotterdam.com, 2017.6.19.

이기열 전문연구원
051-797-4670, kylee@kmi.re.kr



iContainers, 화물운송상태 자동알림 시스템 출시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둔 온라인화물 운송업체인 iContainers는 화물운송상황에 관한 최신정보를 화주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는 ‘자동알림 시스템’을 출시함
 - ‘자동알림 시스템’은 화주들에게 화물운송 상황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공급망 관리에 있어 새로운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임
 - 이에 화주는 전체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선적, 선박의 출발 및 도착 등 화물의 위치 및 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음
- ‘자동알림 시스템’은 해운업계의 정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혁신을 의미함
 - 이러한 알림은 화주에게 사전에 발송되므로 발송상태를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됨
 - 또한 배송회사 및 화물운송업체와 연동되므로 화주가 상품의 위치를 찾기 위해 별도의 연락을 취할 필요가 없음
 - iContainers의 회장인 Iván Tintoré씨는 “화물의 위치 및 상태 등의 정보는 화주에게 중요하다. 이전에는 배송업체 또는 화물 운송업체에 전화를 하거나 운송번호를 입력하여 배송상태를 확인해야했으나 자동으로 화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화주는 안심할 수 있다”고 밝힘
- ‘자동알림 시스템’은 자체 Track&Trace 서비스의 보완 시스템임
 - Track&Trace 서비스는 iContainers에서 2개월 전에 출시된 실시간 컨테이너 추적 도구임
 - iContainers 계정을 통해 배송문서, 계약, 예약내역 및 개별 배송통계 등과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예약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음
 - iContainers에 따르면 ‘자동알림 시스템’을 통해 수입·수출업자는 화물, 생산계획 및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힘
- iContainers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 및 애플리케이션 푸시 알림 기능을 개발 중이며, 향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임

■ 참고자료 : www.maritimeprofessional.com, 2017.6.14.

김영훈 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무료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BoxTech” 사용자 급증

- 지난해 6월 프랑스 비영리 단체인 Bureau International des Containers(BIC)가 출시한 “BoxTech”는 컨테이너의 중량, 최대 적재량 및 전 세계 다양한 종류의 컨테이너 관련 데이터 정보를 보유함
 - 현재 “BoxTech”의 데이터는 지난달 대비 약 50% 증가해 글로벌 선단의 20%에 달하는 약 3,000만 개의 컨테이너 디지털 기록을 보유함
- 무료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BoxTech”의 사용자 수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BoxTech”는 800명의 주요 화주, 포워더 및 선사들을 포함해 총 1,000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함
- 화주 및 포워더는 “BoxTech” 프로그램에 접속해 컨테이너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BIC의 사무총장인 더글라스 오웬(Douglas Owen)씨는 ‘업계의 다양한 정보가 단일 플랫폼을 통해 활용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IT, 데이터 입력, 관리비 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힘
- 2016년 7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는 중량이 잘못 확인된 컨테이너 화물로 인해 발생하는 해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해상안전규칙(Safety of Life at Sea ; SOLAS)을 개정하여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Verified Gross Mass ; VGM)를 시행하였는데, “BoxTech”의 데이터 정보는 VGM을 시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로 인해 화주는 컨테이너 화물의 선적 전에 컨테이너 총 중량을 측정한 후 중량 확인서를 선사 및 터미널에 직접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함
- 또한 최근에는 “BoxTech Alerts System”을 통해 선사에게 컨테이너의 손실 및 도난, 파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기능은 작년 한진해운의 도산으로 약 54만개의 컨테이너가 limbo상태로 남았을 때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함
- 더글라스 오웬씨는 “BoxTech는 앞으로도 독립적이고 비영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더 많은 디지털 기록을 확보해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언급함

■ 참고자료 : www.joc.com, 2017.6.19. / www.joc.com, 2017.5.9.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